

## MMTIC 활용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존감,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김 희 숙\*\*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측면에서 소아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과정으로서 변화에 적응해야하는 중대한 취약시기이다(Kim, 2004). 특히 청소년의 사회적 성장과 발달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사회에 대한 인식이 풍부해짐에 따라 부모로부터 독립에 비례해서 친구에의 의존도가 증가한다. 하지만 Lee(1995)는 이 시기에 청소년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하면 실존적 좌절 내지는 역할 혼돈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부적응 행동을 하게 되며 이 때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관계범위를 또래집단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Sullivan(1953)에 따르면, 또래들과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가졌던 청소년은 향후 대인 관계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와 행동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경우에는 대인관계에서 공포를 경험하게 되어 이후 대인 접촉을 회피하거나 억압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기에 타인과의 적절한 상호작용은 아동기뿐만 아니라 향후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만 11~12세 사이 아동 40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 아동들은 평균적으로 26%의 시간을 혼자 보내고 46%의 시간을 또래 아동들과 함께 보내며, 어른과 함께 있는 시간은 15%에 달했다(Song, 1996). 이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음을 말해 준다. 청소년은 친구들을 통해 사회에서 무엇이 수용되고 거부되는지를 배워가며 사회의 가치관을 흡수하며 규칙준수와 협동심, 타협도 알게 된다. 또한 친구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역할모델이 되기도 한다. 또래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이를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된다. 대인관계란 두 사람 이상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사회적 관계이며 이는 청소년의 학습효과, 사회성, 태도 및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첨단과학 기술과 정보화 사회로 접어든 21세기 우리 사회는 무분별한 컴퓨터 인터넷의 사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친구들과의 대화가 줄어들어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부적응의 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올바른 대인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학교에서 행해질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교과 규정이 정해져 있어 실제 상담활동 및 친교활동에 할애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며 자존감 향상이나 대인관계 개선에 대한 구체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 본 연구는 2005년도경북대학교 신인교수연구비 지원과제임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교신저자 E-mail: hskim8879@knu.ac.kr)

(Ha, 2003).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용 성격유형 검사인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로서 MMTIC(Murphy-Meisgeier Type Indicator for Children)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즉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시켜 주며, 타인은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교우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MMTIC을 활용한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한다.

MBTI나 MMTIC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그 훈련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했던 그 동안의 연구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의 개선(Lee, 1999), 부부의 역할 변화 및 결혼 만족도 증가(Cho, 1997),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개념의 긍정적인 변화(Shim & Kim, 1997) 및 비행의 감소(Ko, 2000), 아동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와 자아개념의 변화(Lyou, 1994), 교우관계와 자아개념을 향상(Ha, 2003) 시킨 연구들이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 뿐 만 아니라 또래들로부터의 인정과 수용은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증대시킨다(Lee, 2001)는 연구에 결과를 고려할 때 MMTIC을 활용한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자아개념의 일부인 자존감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MMTIC을 활용한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으로 개인의 내적인 대처자원의 핵심인 자존감과 사회적 기술인 대인관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MMTIC을 활용한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의 적용이 중학생들의 자존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MMTIC을 활용한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이 자존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MMTIC 활용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2) MMTIC 활용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이 중학생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3. 연구 가설

1) MMTIC 활용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존감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2) MMTIC 활용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대인관계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 4. 용어 정의

### 1) MMTIC 활용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특정 기능을 선호하는 경향을 가진다(Jung, 1971). 이러한 개인간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성격 유형에 따라 인간의 장점, 자원, 건강한 특성, 잠재력 등을 발견함으로써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타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의 변화로 대인관계 향상을 주목적으로 한 자아성장프로그램의 활동을 말한다(Shim & Kim, 1997). 본 연구에서는 Shim과 Kim(1997)의 MBTI 성장프로그램과 Ha(2003)의 MMTIC을 활용한 교우관계향상프로그램을 중학생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계획된 총 8회기 집단상담프로그램을 말한다.

### 2) 자존감

자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Rosenberg, 1973).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73)의 Self-esteem 척도를 Jon(1974)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3) 대인관계

한 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반응하는가, 어떻게 타인을 지각하고 그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가, 타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등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을 말하며(Heider, 1964), Guerny

(1977)의 대인관계 변화척도를 Moon(1980)이 변안한 것을 Chun(1994)이 수정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MMTIC 활용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존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MMTIC 활용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을 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synchronized design)이다.

### 2. 연구대상

2005년 9월부터 11월까지 G시 소재 일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40명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의도표집 하였다.

- 1) 프로그램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 2)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본 연구도구들의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

대상자 수는 Cohen(1988) 공식에 따라  $\alpha=.05$ 에서 power  $1-\beta=.80$ , 효과의 크기가 .50일 때 1개 집단의 최소 표본 수가 17명인 것을 근거로 본 연구의 표본크기를 두 집단 각각 20명이 되도록 자료수집 계획을 하고 시작하였다. 본 연구시작 시 참여한 대상자는 대조군 20명, 실험군 20명이었으나 중도탈락자가 8명 발생함으로써 최종 연구 대상자는 대조군, 실험군 각각 16명씩 총 32명이었다.

### 3. 연구 도구

#### 1) MMTIC

Jung의 심리유형이론과 성인용 성격유형검사(MBTI)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및 청소년용 성격유형검사로서 Kim과 Shim(1990)에 의해 한국어판으로 표준화되었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MMTIC 한국어판 검사지는 7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

도의 검사-재검사에 의한 신뢰도는 내향·외향(EI)척도 .76, 감각·직관(SN)척도 .65, 사고·감정(TF)척도 .63, 판단·인식(JP)척도 .63이며, 어린이용 성격진단검사간의 구성타당도는 .58( $P<.001$ )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MMTIC의 4가지 선호지표(EI, SN, TF, JP)와 이를 조합하여 나타나는 16가지 성격유형을 이용하였다.

#### 2) MMTIC 활용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

Shim과 Kim(1997)의 MBTI 성장프로그램과 Ha(2003)의 MMTIC을 활용한 교우관계향상프로그램을 본 연구자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MMTIC을 활용한 중학생상담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회기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8회기 집단상담프로그램을 매 회기 당 45분씩 총 8주 동안 진행하였다. 첫 회기에 오리엔테이션 및 설문지 조사, MMTIC검사 실시 및 유형 추측, 자기의 고유한 성격유형을 인식하기 위해 외향성과 내향성의 차이를 알기 위한 집단활동, 감각형과 직관형의 차이를 알기 위한 집단활동, 사고형과 감정형의 차이를 알기 위한 집단활동, 판단형과 인식형의 차이를 알기 위한 집단활동, 고유한 내 모습 이해를 통한 자기의 강점, 자원 및 잠재력 확인 활동, 나와 반대유형에 대한 장점 찾고 발표하기 등으로 되어 있다.

#### 3) 자존감

Rosenberg(1973)의 Self-esteem 척도를 Jon(1974)가 번역한 것으로 Likert식 4점 척도이며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긍정적 문항 5개와 부정적 문항 5개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3$ 이었다.

#### 4) 대인관계

Guerny(1977)의 대인관계 변화척도를 Moon(1980)이 변안한 것을 다시 Chun(1994)이 수정한 도구로서 만족감, 신뢰도,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의사소통의 7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25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에서 5

점까지의 5점 척도로 최저 25점에서 최고 7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1$ 이었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은  $\chi^2$  test와 t-test를 실시하였고 중재 전후 집단 비교는 paired t-test로 중재 전후 차이에 대한 집단간의 비교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실험군은 남학생 50%, 여학생 50%, 대조군은 남학생 56.3%, 여학생 43.8%였다. 종교는 무교가 각각 56.3%로 가장 많았고, 출생 순위는 첫째가 실험군은 68.8%, 대조군은 56.3%로 가장 많았다. 비행친구는 없다가 실험군 67.3%, 대조군 50%로 가장 많았으며, 학업성적은 실험군에서 중

상위권이 50%, 대조군은 중하위권이 62.5%로 가장 높았으며,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 2. 사전검사 점수의 동질성 검정

대상자의 종속변수 중 자존감은 실험군 평균이 26.63±3.36점, 대조군 평균은 27.50±3.10점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인관계에서도 실험군 평균 88.75±11.53점, 대조군 90.19±11.32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인관계 하위영역별 점수는 만족감의 실험군 평균 13.19±2.76점, 대조군은 13.88±1.82점이었고, 의사소통의 실험군 평균은 14.63±2.42점, 대조군은 15.31±1.82점이었으며, 신뢰감은 실험군 평균 10.13±1.31점, 대조군 10.81±1.52점, 친근감은 실험군 평균 11.44±2.00점, 대조군 10.69±1.35점, 민감성의 실험군 평균 7.38±1.75점, 대조군 7.06±1.24점, 개방성의 실험군 평균 17.19±2.76점, 대조군 17.94±3.43, 이해성의 실험군 평균 14.81±2.07점, 대조군 14.50±2.53점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군 임이 밝혀졌다<Table 2>.

#### 3. 가설 검정

<Table 1>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General characteristics		Exp.		Cont.		$\chi^2$	p
		N	%	N	%		
Gender	Male	5	50.0	9	56.3	.125	.723
	Female	5	50.0	7	43.8		
Religion	Buddhism	6	37.5	3	18.8	3.00	.392
	Protestantism	1	6.3	3	18.8		
	Catholicism	0	0.0	1	6.3		
	None	9	56.3	9	56.3		
Birth order	1st	11	68.8	9	56.3	.533	.465
	≥ 2nd	5	31.3	7	43.8		
Number of Delinquent friend	None	9	56.3	8	50.0	.136	.934
	One	1	6.3	1	6.3		
	More than two	6	37.5	7	43.8		
Academic achievement	Low	0	0.0	2	12.5	4.802	.187
	Middle low	7	43.8	10	62.5		
	Middle high	8	50.0	3	18.8		
	High	1	6.3	1	6.3		
Total		16	100.0	16	100.0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Table 2>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Exp.(n=16) Mean±SD	Cont.(n=16) Mean±SD	t	p	
Self-esteem	26.63± 3.36	27.50± 3.10	-0.77	.450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13.19± 2.76	13.88± 1.82	-0.83	.412
	Communication	14.63± 2.42	15.31± 1.82	-0.91	.370
	Trust	10.13± 1.31	10.81± 1.52	-1.37	.180
	Intimacy	11.44± 2.00	10.69± 1.35	1.24	.223
	Sensitivity	7.38± 1.75	7.06± 1.24	0.58	.563
	Openness	17.19± 2.76	17.94± 3.43	-0.68	.501
	Understanding	14.81± 2.07	14.50± 2.53	0.38	.705
	Total	88.75±11.53	90.19±11.32	-0.36	.724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Table 3> Comparisons of self-esteem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Group	Before Tx Mean±SD	After Tx Mean±SD	t <sup>a</sup>	p	Difference (After-Before) Mean±SD	t <sup>b</sup>	p
Self-esteem	Exp.	26.63± 3.36	28.63± 2.90	-3.34	.004	2.00±2.39	2.75	.010
	Cont.	27.50± 3.10	27.25± 2.41	0.45	.661	-0.25±2.24		

t<sup>a</sup>=Paired test, t<sup>b</sup>=Unpaired test,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가설 1. MMTIC 활용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존감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자존감은 실험군이 실험 전 26.63±3.36점에서 실험 후 28.63±2.90점으로 유의하게 높았고(t=-3.34, p=.004), 대조군은 실험 전 27.50±3.10점에서 실험 후 27.25±2.41점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처치 전·후 차이에 대해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sub>b</sub>= 2.75, p=.010)<Table 3>.

가설 2. MMTIC 활용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대인관계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대인관계에서는 실험군에서 실험 후 대인관계 정도가 높아졌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대조군은 실험 전 90.19±11.32점에서 실험 후 85.00±12.55점으로 감소하여(t<sup>a</sup>=2.91, p=.011) 실험처치 전·후 차이에 대해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sup>b</sup>=3.02, p=.005). 대인관계 하위 영역별에서 만족감은 실험군에서는 실험 후 높아졌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대조군은 실험 전 13.88±1.82점에서 실험 후 12.75±1.73점으로 감소하여(t<sup>a</sup>=3.74, p=.002), 실험처치 전·후 차이에 대해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t<sup>b</sup>=3.05, p=.005), 의사소통에서는 두 군 모두 실험 전·후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처치 전·후 차이에 대해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sup>b</sup>=2.13, p=.046). 신뢰감도 실험군에서 실험 후 높아졌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대조군은 실험 전 10.81±1.52점에서 실험 후 9.88±1.50점으로 감소하여(t<sup>a</sup>=2.53, p=.023), 실험처치 전·후 차이에 대해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sup>b</sup>=2.57, p=.015). 하지만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과 이해성은 두 군 모두 실험처치 전·후 및 처치 전·후 차이에 대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가 없었다<Table 4>.

####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MMTIC 활용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중학생의 자존감과 대인관계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MMTIC 활용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존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MMTIC을 활용한 자아정체감과 학업성취지도 통합프로그램(SAM)을 사용하여 아동들의 자아존중감과 학습효능감을 향상시켰다는 박정묘(Ha, 2003년에 인용됨)의 연구결과와 MMTIC을

<Table 4> Comparis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Group	Before Tx	After Tx	t <sup>a</sup>	p	Difference	t <sup>b</sup>	p	
		Mean±SD	Mean±SD			(After-Before) Mean±S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Exp.	13.19± 2.76	13.94± 2.29	-1.40	.182	0.75±2.14	3.05	.005
		Cont.	13.88± 1.82	12.75± 1.73	3.74	.002	-1.13±1.20		
	Communication	Exp.	14.63± 2.42	14.75± 2.29	-0.57	.580	0.13±0.89	2.13	.046
		Cont.	15.31± 1.82	14.25± 2.29	2.08	.056	-1.06±2.05		
	Trust	Exp.	10.13± 1.31	10.63± 1.67	-1.20	.251	0.50±1.67	2.57	.015
		Cont.	10.81± 1.52	9.88± 1.50	2.53	.023	-0.94±1.48		
	Intimacy	Exp.	11.44± 2.00	11.06± 1.84	1.46	.164	-0.38±1.02	-0.31	.758
		Cont.	10.69± 1.35	10.44± 1.82	0.81	.432	-0.25±1.24		
	Sensitivity	Exp.	7.38± 1.75	7.44± 1.55	-0.22	.827	0.06±1.12	1.16	.257
		Cont.	7.06± 1.24	6.63± 1.82	1.33	.203	-0.44±1.31		
	Openness	Exp.	17.19± 2.76	17.25± 3.34	-0.09	.927	0.06±2.67	1.24	.223
		Cont.	17.94± 3.43	16.94± 3.04	1.88	.080	-1.00±2.13		
	Understanding	Exp.	14.81± 2.07	15.19± 2.40	-1.25	.232	0.38±1.20	1.20	.239
		Cont.	14.50± 2.53	14.13± 2.13	0.69	.503	-0.38±2.19		
Total	Exp.	88.75±11.53	90.25±12.41	-1.14	.274	1.50±5.28	3.02	.005	
	Cont.	90.19±11.32	85.00±12.55	2.91	.011	-5.19±7.12			

t<sup>a</sup>=Paired test, t<sup>b</sup>=Unpaired test,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활용한 교우관계향상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Ha(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보호관찰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MBTI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집단지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고 Kwon(Ko, 2000년에 인용됨)의 보고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MBTI를 활용한 자아성장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성격과 잠재력을 발견, 개발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따라서 자아존중감도 향상되었다는 Martin(1995)의 보고와도 일치한다. Kim과 Shim(1995)은 MBTI가 자기탐색과 관련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개발을 심화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하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 MMTIC 활용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학생의 경우 평소 친구들과의 성격유형에서의 차이를 인식하고 자신의 성격의 고유한 장점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다른 친구들보다 열등한 사람으로 보고 자기주장을 하지 못함으로써 자신감을 잃고 혼자 외톨이로 지내왔다고 하며 왜 다른 친구들과 차이가 있었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매 회기마다 반복되는 인정과 칭찬으로 자신들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좋다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MMTIC 활용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성격유형의 건

강한 특성, 장점을 인정받고 인식함으로써 자존감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MMTIC 활용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대인관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Im(2003)의 성격적 자기이해가 높아지면 대인관계 이해성이 높아진다고 한 보고와 Bayne(Shim & Kwak, 1997년에 인용됨), Martin(1995)의 자기를 깨닫고 상대에 대해 민감해 질수록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긍정적인 자기표현과 동시에 타인을 온정적 태도로 대할 수 있다고 한 보고와 일치하였으며 MMTIC을 활용한 교우관계향상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Ha(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Kwon(2002)이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MBTI 자아성장프로그램을 통해 대인관계에서 상호간의 성격을 변화시키려는 욕구에서 벗어나 자기기준에서의 타인이해가 아니라 타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을 이해함으로써 대인관계 점수가 향상되었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고, 교사 집단을 대상으로 한 Kim(1999)의 연구에서도 MBTI 성격이해프로그램이 자기와 타인을 이해하고 개개인의 성격특성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중요한 사람들과 그 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줄어들고 따라서 대인관계

능력이 증진되었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

하지만 대인관계 하위영역별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 본 연구와 Ha(2003)의 연구를 비교해 보면 MMTIC을 활용한 인간관계향상프로그램 후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성 정도는 유의한 수준으로 향상되어 일치하였으나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과 이해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Ha(2003)와 Im(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회기가 8회로서 Ha(2003)의 11회기, Im(2003)의 10회기에 비해 다소 짧았던 점과 Im(2003)의 보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친근감, 민감성, 이해성, 개방성은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성에 비해 쉽게 좋아지지 않은 점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는 MMTIC 활용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이 중학생들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호간의 성격을 변화시키려는 충동에서 벗어나 각자 개성을 인정할 수 있고 자기기준에서의 타인이해가 아니라 타인 그대로의 성격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타인을 신뢰하고 지속적인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현대사회의 변화 속에서 입시위주의 경쟁의식으로 학교교육이 오직 공부만을 강조함으로써 간과하고 있는 청소년시기의 정서적 혼란과 긴장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와 학교 부적응 문제를 보건교사들이 자기와 타인의 성격유형, 장점과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하고 나아가 긍정적인 자기지각으로 자신감과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MMTIC 활용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MMTIC 활용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은 중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처방안으로 학교정신보건에 기여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의 자존감,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기간은 2005년 9월부터 11월까지였으며 연구대상은 G시의 일개 중학교 학생으로서 실험군 16명, 대조군 16명, 총 32명이었다. 연구 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사용한

유사실험 연구였으며, MMTIC, 자존감 척도, 대인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hi^2$  test, paired t-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MMTIC 활용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존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2. MMTIC 활용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대인관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므로 MMTIC 활용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은 중학생의 자존감과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간호중재의 한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해결과 학교생활의 적응을 위해 MMTIC 활용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2. MMTIC 활용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의 회기를 확대 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
3. MMTIC 활용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의 훈련 직후 효과뿐만 아니라 지속효과를 검증해 볼 것을 제언한다.
4. MMTIC 성격유형별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Briggs, M. S., & Myers, P. B. (1980). *Gifts Differing*,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Cho, Y. W. (1997). *The effect of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married couples group based on the MBTI*.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Chun, S. K. (1994).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for rehabilitation of the schizophrenic patients*.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 New Jersey.
- Guernsey, B. G. (1977). Relationship enhancement skill-training programs for therapy, problem prevention, and enrichment, *Train Dev J*, 39(9), 84-85.
- Ha, G. S. (2003). *The effects of the peer relation improvement program derived from MMTIC on peer relations and self-concepts of the elementar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inju.
- Heider, F. (1964).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 Im, S. I. (2003). *The effect of group program utilizing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attitude of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il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y Seminary, Wanju.
- Jon, B. J. (1974). Self-esteem : A test of its measurability. *J Yonsei Univ*, 11.
- Jung C. G. (1971). *Psychologic type*(H. G. Baynes, Trans. revised by R. F. C. Hull). Volume 6 of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in 1921).
- Kim, J. E. (1999). *The effectiveness of MBTI program for interpersonal relation and the group cohesion: Mainly based on the teachers of sunday school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J. T., & Shim, H. S. (1990). *Guidance of MBTI*. Korean psychological Lab, Seoul.
- Kim, S. Y. J. (2004). *Growth and development in ljuvenile and care*, Seoul: Soomoonsa.
- Ko, K. O. (2000). *The effect of MBTI improvement program on the Adolescent's latent delinqu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 Kwon, Y. H. (2002). *Effect of ready planned self-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Lee, B. H. (2001). *The influence of relationship-promoting group counseling on the satisfaction of Children's fellow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ju University, Jeju
- Lee, S. L. (1999). *The effect of the relationships improvement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relationships improvement throuth MBTI*.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Lee, T. I. (1995). *The effect of group social work for improvement of self-esteem in juveni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yoo, Y. O. (1994). *The effect of group career counseling utilizing C-MBTI on children's career maturity and self-concep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Pusan.
- Martin, C. C. (1995). *Looking at types and careers*. CATP, Florida.
- Moon, S. M. (1980).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J Gyungsang Nat Univ*, 19, 195-204.
- Rosenberg, M. (1973). Which significant others?. *Am Behav Sci*, 16, 829-860.
- Shim, H. S., & Kwak, M. J. (1997).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 MBTI Self-growth program for juvenile delinquents on probation. *J Kor Acad Psychol Type*, 4, 1-28.
- Shim, H. S., & Kim, M. K. (1997).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 MBTI self-growth



● MMTIC 활용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존감,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

program for juvenile delinquents on probation.

*J Kor Acad Psychol Type*, 4, 52-78.

Song, M. J. (1996). *Developmental psychology*,

Seoul: Hakjisa.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ABSTRACT

---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Applied MMTIC o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

Kim, Hee Sook(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Applied MMTIC o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ethod:** The survey was carried out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05. The subjects were 32 middle school students in G City. To test the effects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Applied MMTIC,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16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6 in the control group. The research design used in this study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and post-test design in quasi-experimental research. The research tools included MMTIC(Murphy-Meisgeier Type Indicator for Children), self-esteem scal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 paired t-test, and t-test on the SPSS/WIN 10.0 program. **Resul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self-esteem scor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middle school student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Applied MMTIC and those who did not. **Conclusion:** Therefore, it appears that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Applied MMTIC is a useful nursing intervention for improving th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middle school students.

Key words : Middle school student,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